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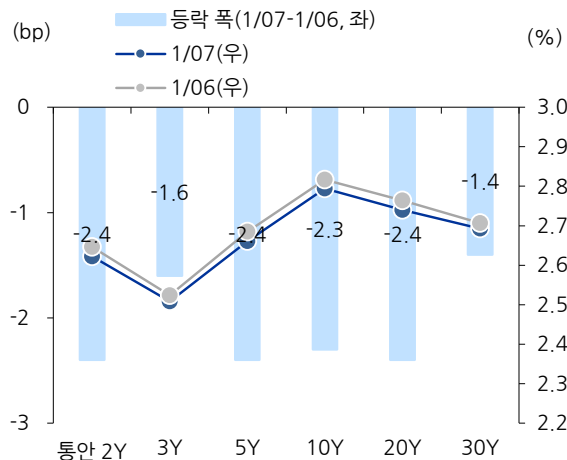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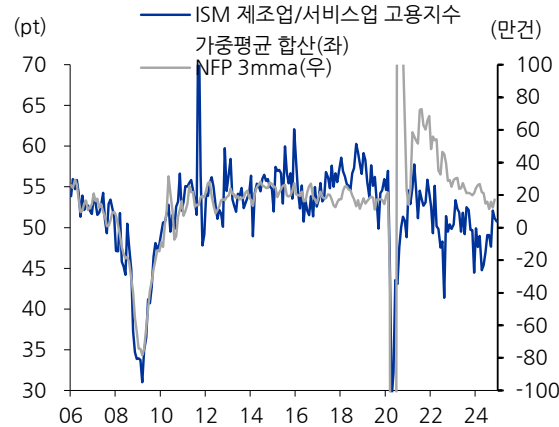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| | 1/7일 | 1D | 1W | YTD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|-------|
| 국내 채권 | 한국 국고채 3년물 | 2.508% | -1.6 | -8.9 |
| | 한국 국고채 10년물 | 2.794% | -2.3 | -6.1 |
| | 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 | 28.6 | 29.3 | 25.8 |
| | 3년 국채 선물(KTB) | 106.85 | 7.0 | 22.0 |
| | 10년 국채선물(KTB) | 117.84 | 39.0 | 105.0 |
| 해외 채권 | 미국채 2년물 | 4.293% | 1.8 | 4.9 |
| | 미국채 10년물 | 4.686% | 5.5 | 15.2 |
| | 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 | 39.3 | 35.6 | 29.1 |
| | 독일국채 10년물 | 2.481% | 3.5 | 11.6 |
| | 호주국채 10년물 | 4.478% | 0.8 | 11.0 |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ISM 고용지수 및 비농업고용 동향



ISM 가격지수 및 PCE 동향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
- 전일 서비스업 지수 호조로 상승한 미국채 금리 따라 약세 개장했으나 이내 강세 전환. 원달러 환율 급락,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 강화 등 영향
- 오전 중 국고채 30년물 입찰은 무난히 소화. 이후 한은 15조원 RP 매입 등 대규모 유동성 공급 확인하며 낙폭 확대
- 여당, 최 권한대행을 직무 유기 및 특수 공무집행 방조 혐의로 조치 취할 것을 시사. 정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진행형이나 당일 시장 영향은 미미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약세 마감. 지표 호조, 매파발언 여파
- ISM 서비스업 지수 호조로 금리 상승. 하위 지표 중 가격지수, 60을 웃돌며 2년여만에 최고치 경신. 선행지표 격인 신규수주지수, 확장국면에서 반등
- 견조한 서비스업 경기 반영하며 애틀랜타 연은 GDP 나우는 4Q24 성장률 전망치를 소비 중심 상향 조정
- 이외 JOLTs 구인건수는 지난 6개월 중 최고치 보이며 예상을 상회했고, 10년물 입찰 수요 부진까지 겹치며 금리 부담이 가중됨
- 애틀랜타 연은 총재, 인플레이 하락 진전이 고르지 못한 만큼 연준도 정책 결정에 신중할 것을 강조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하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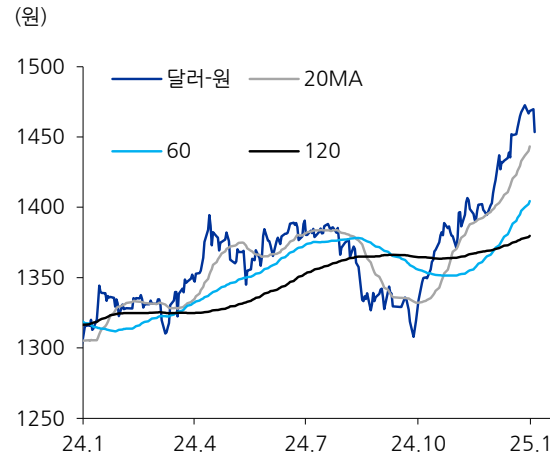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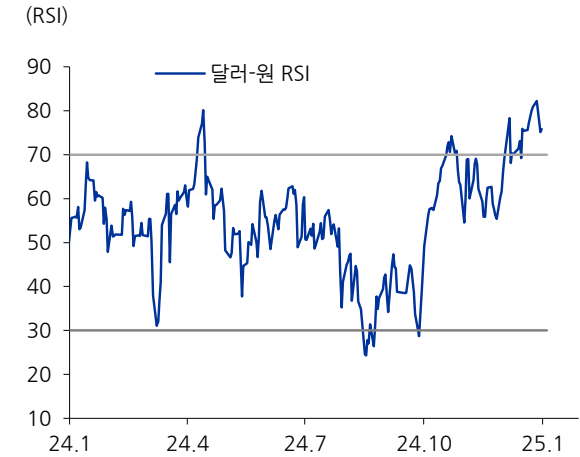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| | | 1/7일 | 1D | 1W | YTD |
|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환율 | 원/달러 | 1,453.50 | -1.1% | -1.0% | -1.3% |
| | 달러지수 | 108.65 | 0.4% | 0.2% | 0.2% |
| | 달러/유로 | 1.034 | -0.4% | -0.1% | -0.1% |
| | 위안/달러(역외) | 7.34 | -0.1% | 0.1% | 0.1% |
| | 엔/달러 | 157.88 | 0.2% | 0.3% | 0.5% |
| | 달러/파운드 | 1.248 | -0.3% | -0.3% | -0.3% |
| | 헤알/달러 | 6.10 | -0.2% | -1.3% | -1.3% |
| 상품 | WTI 근월물(\$) | 74.25 | 0.9% | 4.6% | 3.5% |
| | 금 현물(\$) | 2,650.32 | 0.6% | 1.0% | 1.0% |
| | 구리 3개월물(\$) | 8,980.00 | -0.3% | 0.8% | 2.4%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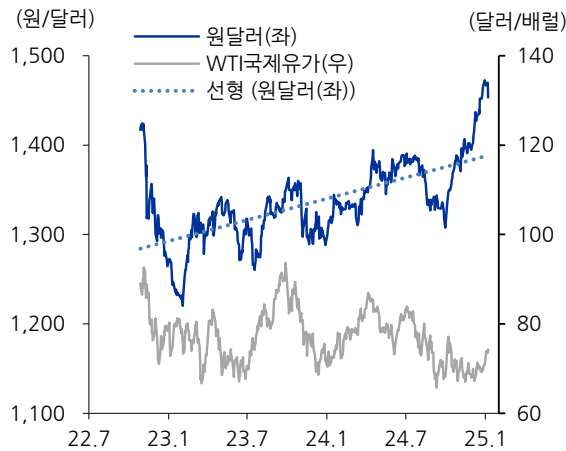
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-16.20원 급락한 1,453.5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53.00원 마감.
- 간밤 트럼프가 관세 정책 기조를 완화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영향에 달러는 약세를 보였고, 달러-원도 하락 출발.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달러-원은 장초반 1,465원까지 반등.
- 이후 역외 매도가 이어지면서 재차 낙폭 확대. 오전 중 국민연금의 환헤지로 추정되는 물량이 나오자 경제심에 낙폭이 커졌으며, 국내 증시도 호조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견고한 미국 경제지표 속에 상승.
- 미국 12월 ISM 서비스업지수는 54.1로 시장 예상치(53.3)를 상회. 특히 가격지수가 64.4로 지난해 1월 이후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인플레이 우려 심화.
- 미국 11월 구인건수도 809.8만 건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최고치 기록.
- 견고한 고용과 상황과 인플레이 우려가 재점화되면서 미국채 금리와 달러 모두 상승. 달러-원도 야간거래에서 1,440원대 초중반까지 낙폭을 확대했으나 달러가 반등하면서 낙폭 축소. 아직 달러 강세 재료가 많아 당장 환율이 크게 안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, 연금 환헤지 경제감이 커지면서 변동성은 잦아들 것으로 예상.